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를 꼽는다면 우선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 어린 시절과 교장이 되어 8년 동안 시인 교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시절일 것이다. 거기다 더 하나를 보탠다면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뒤, 역시 8년 동안 공주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내던 시절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공주 태생이 아니다. 서천 출신인데 30대 초반부터 공주에 와서 사는 사람이다. 어느 고장이든 문화원장은 그 고장 출신을 앉히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자존심 높은 공주 사람들이 나를 문화원장으로 허락해 준 것이다. 두고두고 감사한 노릇이다. 만약 나에게 문화원장 경험이 없었다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면 나의 생애는 매우 단조롭고 조그마했을 뻔했다. 교직 생활은 어린 학생들과 엇비슷한 생활을 지닌 교직원들과 어울려 약간은 율타리 안에 갇힌 생활이고 소극적인 생활이다. 하지만 문화원장은 어른들을 상대로 하면서 문화 일반에 폭넓게 관여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는 비로소 문화원장의 날들을 추가해야만 어렵사리 완성된다고 본다.

내가 문화원장이 되어 시도한 일 가운데 하나는 찬조금을 많이 받아 문화원의 재정을 보다 부드럽게 하는 일이었다. 나부터 찬조금을 많이 내도록 노력했다. 그런 다음 그 찬조금 명세를 문화원 소식지에 상세히 밝혔다. 그것이 찬조금을 낸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찬조금을 더 많이 받아 내는 길이라 여겼던 까닭이다. 몇 차례 찬조금 명세를 밝히고 나더니 조금씩 반응이 왔다. 소식지를 받아 본 분들 가운데 생각이 깊은 분들이 찬조금을 내주기 시작한 것이다. 찬조금은 점점 늘어났다. 나중에는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찬조금이 들어왔다. 바로 이거다 싶은 쾌재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이 들어맞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회원 한 분이 말했다. 왜 찬조금 명세를 자꾸만 밝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실은 찬조금을 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찬조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명세를 밝히는 거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만 한다. 모든 일에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좀 생각해 주어야 한다. 돈이나 학식이나 교양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반대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문화원장을 하는 동안 나에게 모범과 교훈을 보여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신데 내가 문화원장이 되면서 교문으로 모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문

화원장이 된 뒤부터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찬조금을 주셨다. 그것도 당신이 손수 현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시고 문화원장실로 와 살그머니 봉투를 놓고 가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여러 가지들 깨치고 결심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능하다면 나도 선생님처럼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자! 여유 있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문화계를 위해서 쓰자. 참 이런 생각이 이전의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생각이다. 선생님이 몸으로 본을 보여 주셨기에 스스로 배운 결과이다. 그 뒤로 나는 해마다 수월찮은 액수를 문화계를 위해서 사 용해 오고 있다. 고향 서천에 신석초 문학상 제정을 지원하고 미주의 시인들을 위해 해외꽃시인상을 제정하여 시상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가끔 어이없는 말을 듣기도 한다. 내가 무슨 특별한 의도나 사심이 있어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 본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종교칼럼

이기심과 이타심



중현 광주중심사 주지

새벽부터 몸이 유난히 무겁다. '어디가 안 좋은가?' 괜한 걱정이 눈치 없이 불쑥 튀어나온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걱정되는 마음을 다독일 요량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하긴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긴 했구나.' 몸이 무거운 이유를 알고 나니 밀도 끌도 없이 치고 올라오던 걱정이 언제 그랬나 싶게 수그러 든다. '얼마 운전한 것도 아닌데... 어찌다가 이런 저질 체력이 되어 버렸을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의문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온다. 이게 다 나잇살 때문이다. 나잇살은 모래주머니 같은 거다. 학창 시절, 종아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다. 그때야 체력 단련을 위해 일부러 모래주머니를 달았지만, 지금은 세월을 핑계대는 게으름이 억지로 몸에 모래주머니를 하나 둘 달

아준다.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있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 건 당연하다.

'몸 구석구석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비젯덩어리들을 어서 떼 버려야 할 텐데...'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괜한 낚두리를 늘어놓는다. 문득 어제 주차장에서 본 택배 차량이 떠오른다. 이젠 또 무슨 맥락인지 정말 의아스럽다. 하얀 택배 치는 쉬는 건지 아니면 택배 리스트를 확인하는 건지 꽤 긴 시간 동안 주차해 있었다. 나 역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서는 좀 불쌍하다가 들어갈 요량이었다.

'택배 차가 여기 주차해도 되나?' 택배 치는 주차장에 주차해선 안된다는 법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한 택배 기사들은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짐을 내리기 무섭게 땀 하나 가버렸다. 그래서일까 주차해 있는 택배차가 웬지 낯설어 보여 눈에 들어온 모양이다. 아니면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택배 기사가 귀하다 귀한 주차 공간을 마음대로 점거한 채, 대놓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살짝 눈살이 찌푸려진 것일 수도 있다. 내 안에 살아 있던 택배 기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튀어나온 순간이다. 택배 기사는 게이미나 로봇처럼 열

심히 일만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택배 기사는 허드렛일을 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선입견 말이다.

그리고 보니 미국 아마존에서는 시범적인 이긴 하지만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고 한다. 로봇처럼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택배 배달을 하는 세상이다. 요즘 4차 산업 혁명, AI 이런 것들이 대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할 일을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대신한다는 말이다. 소프트웨어나 로봇은 피곤해 하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없고, 24시간 일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더 좋은 대안이 어디 있을까 싶다.

'그런데 도처에서 쏟아져 엄청난 실업자들은 어떻게 감당하지?' 당연한 의문이 뒤를 따랐다. 짧은 순간 동안 전광석화처럼 토막난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훑듯 놀라 괜히 미스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진 망상이었지만,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마음 한 구석이 쾅졌다.

'나는 조금만 운전 해도 이렇게 피곤한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거운 짐까지 나르는 택배 기사는 얼마나 피곤할까' 좀 전의 부정적인 생각을 몽땅

잡아먹을 기세로 배려심이 작렬한다. 하긴 언제 한번 제대로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가슴으로 헤아려 볼 적 없다. 공감은 공유하는 편이가 있어야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운전을 오래 해 보니 몸이 뭉스럼이라는 경험이 매개가 되어 택배 기사들의 삶에 보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감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배려하는 마음도 갖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상대방을 공감하기보다 타인이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타인이 힘들어 하는 것을 들여다 보고 알고 공감하기도, 내가 힘든 것을 보여 주고 알려 주고 싶어 한다. 인간에게는 공감마저도 이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공감은 하는 것이지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비록 택배 기사에 대한 편견을 덮을 요량으로 튀어나온 배려심이긴 하지만, 자비심의 양식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무척 소중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이기심을 피하기 힘들다. 다만 그때마다 반성하고 참회하면 된다. 그래야 이기심은 이타심의 거름이 되고, 또 그만큼 자비심이 자라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이다.

기고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병되어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는 신종 전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및 중국과 인접한 국가는 물론 유럽, 미주 지역까지 환자가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감염 경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 약품도 개발되지 않았으며, 발병 환자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두려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되고 심각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져서 모두가 조심하는 것

이 상책일 뿐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현상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점이 많은 듯하다.

우한 거주 교민들을 귀국시켜 14일간 격리 시설에 머물게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갈등에 휩싸인 적이 있다. 교민, 정부, 지역민, 어느 쪽이나 그 걸박함은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논리나 입장이 타당했다. 잘못하다가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축즉발의 대립과 갈등은 'We are Asan'이라는 스키치북에 쓰여진 짧은 손팻말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같은 국민이라는 연대감이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을 터이지만, 그 손팻말은 편협한 '애국주의, 종족주의,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메아리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역, 인종, 국가, 성별을 넘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보편적 인

류애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두렵다. 그래서 차이나 포비아(China Phobia)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생지가 중국이고, 중국인들의 식습관과 '박쥐'의 바이러스가 겹쳐지면서 확산된 차이나 포비아는 수많은 '가짜 뉴스'까지 양산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보수 정치 세력은 이러한 차이나 포비아를 부추기고, 혐오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한 힘내라'(武漢加油)라는 지원과 격려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며, 원자재나 부품의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마이너스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도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원도심려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뿌리내리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 도시가 고립되어 배제와 편견을 뒤집어 쓴 아픔을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는 경험했고, 또한 이러한 편견이나 차별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확대되어 가는가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든 빈곤이든, 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힘은 배려와 연대, 지원과 애정에서 나온다. 더구나 지금처럼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포비아 뒤에 숨어있는 혐오와 차별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널리 퍼지는 듯 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면 위축은 듯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는 작디 작은 손팻말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빛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 의식과 연대 행위를 인식하게 된다.

社說

코로나 방역망 허술 지역사회 감염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망은 지극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국내 16번째 환자(여·광주)에 이어 그의 가족 2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했던 큰 딸(18번 확진자)과 친오빠(22번 확진자)도 추가 감염된 것이다. 22번 확진자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5일 나주시 산포면 어머니 집에서 16번 확진자 내외, 16번 확진자의 자녀들인 조카 3명, 자신의 부인 등 총 7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22번 확진자는 16·18번 확진자와 달리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과 접촉한 시·도민이 늘면서 지역 간 감염이 현실화한 것이니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340명으로 파악됐고, 22번 확진자의 거

주지인 나주를 비롯해 직장까지 격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의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등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엿그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 지역 선별진료소 12곳 가운데 의료 인력이 상주한 곳은 2개 병원과 5개 자치구뿐이었다. 진료소에는 감염 징후로 알려진 폐렴 여부를 파악하는 X-ray 촬영 장비도 없애다. 장비를 운용할 보건 전문 인력도 태부족인 상태다. 전남 지역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 당국과 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조기 확진 체계를 서둘러 확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도 주된 확산 경로는 병원 내 감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병원에 대한 방역 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확진자 정보 신속 공개로 불안 확산 막아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혼란을 막는다'며 확진자의 동선 등 각종 정보를 통제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는 지난 4일 오전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광주시 광산구)의 이동 경로를 그로부터 28시간여 만인 5일 오후 2시에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나주 친정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21세기병원과 전남대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은 것이 주요 내용이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태극에서 입국한 이후 9일간의 동선과 마트 방문 등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각종 가짜 뉴스와 루머가 떠돌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증폭됐다. 실제 인터넷과 SNS 등에는 A씨의 직장부터 A씨가 다닌 대형 마트 등 각종 가짜 동선과 해당 마트가 폐쇄됐다는 등의 헛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라며 확진

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보 통제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제 "광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가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남도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6번 확진자가 무안공항을 거쳐 입국했고 환자가 죽어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업무 연락조차 없어 선제적인 방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유출은 낙인 효과와 차별 등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감염병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잘못된 정보가 진짜처럼 확산해 공포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이는 방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하나의 유령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은 '신종 코로나 공포'.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전파돼 16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광주의 거리는 온통 '마스크'로 뒤덮였다. 18번·22번 확진자까지 한 가족 3명이 감염되고, 16번 확진자가 병원 등에서 306명을 접촉했다. 휴대전화에는 시시각각 안전 안내 문자가 전송되고 신문은 하루 종일 관련 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사람들은 카톡으로 공유되는 확진자와 그 가족의 동선에 혹시나 내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한다. 불

영·박성현·김세영을 비롯한 토크커들이 태극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혼다 타일랜드와 HSBG 위트니스 월드 챔피언십에 잇따라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당장 이번 달 말 개막 예정인 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도 아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부 리그로 승격해 지역 팬들의 기대 속에 태극 치앙마이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FC는 '코로나'라는 뜻밖의 난적을 만나게 됐다. 비상이 걸린 것은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다. KIA 선수 공유되는 확진자와 그 가족의 동선에 혹시나 내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한다. 불

뜻밖의 난적

단은 지난달 말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하고전지훈련장인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다. 아직

KBO리그의 개막이나 일정 축소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의 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시범경기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뒤늦게 불어온 감염병 광풍이 시즌 자체를 위협할 조짐이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그리고 올림픽까지 스포츠계 전체가 모두 낯설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재관 편집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